

[대담] 사교육, 터놓고 말하자

언 제 2008년 5월 29일(목) 저녁 7:50~ 10:05
 어디서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국 회의실
 주 관 공동육아회보 편집위원회

사 회 김미애 현장교육지원전문가
 대담자 공영아 산어린이집 교육이사
 이수빈 즐거운어린이집 이사장, 전 교육이사
 민경진 참나무어린이집 교육이사
 오병순 개똥이네어린이집 교육이사
 이현숙 회보팀장

기 록 광영선 홍보부장

사회자 이 자리는 무엇이든 터놓고 이야기해보자는 생각으로 마련되었어요. 사실 사교육이야기는 매년 논의되는 이야기중의 하나이지요. 올해도 예외 없이 이런 저런 논의 중에 사교육, 조기교육, 특기적성교육 등의 이름으로 각 터전에서 논의되면서 조합원 교육의 주제중의 하나로 떠올랐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던 사교육에 논의가 집중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인지 궁금함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터전에서 나왔던 이야기나 개인적인 의견들을 모아보면, 각 터전에서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먼저 참석자 소개로 시작해보지요. 사회를 보는 저는 열리는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했었고, 지금은 현장교육지원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스콜라예요.

민경진 저는 참나무어린이집 꽃게예요. 교육이사를 맡은 지 5개월째이고요, 아직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좋고요. 반가워요.

오병순 개똥이네 어린이집 교육이사예요.

이수빈 즐거운어린이집 이사장이고요. 교육이사로 1년 임기를 채우기 전에 이사장이 되었어요.

공영아 저는 산어린이집 교육이사를 맡고 있고요, 공룡이라고 해요.

이현숙 거인이예요. 공동육아 회보팀장이고요, 사무국에서 조직사업을 하고 있어요. 7년째 회보를 만들고 있고요, 현장의 소리를 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사회자 2008년, 사교육이 공동육아의 화두인가요? 각 터전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수빈 저희는 작년에 7세들이 졸업하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만 2년 반, 제일

오래된 사람이 3년 밖에 되지 않아요. 사교육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반기 가을에 조합원교육을 했어요. 교육 전에 설문지를 돌리고, 결과 보고하고, 강의도 듣고 그랬어요. 우리터전은 주변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때 설문조사결과가 25가구 중 시키고 있는 가구는 5~6가구, 하고 있는 집은 주로 7세로 1~2가구였어요. 토요일에 요리미술프로그램을 하거나, 형 따라서 초등학교 축구, 한글 선생님 1명 등 그게 다였어요. 물론 이야기도 끊임없이 되었어요. 조합원교육이 정리하는 계기가 되고, 올해 초가 되면서 원장님의 권유나 토론으로 거의 사교육을 끊었고, 현재는 튼튼영어나 한글을 하는 한 두 가구만 남았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조합원들은 교사들과 충분한 논의 속에서 했어야 했어요. 개별교육에 대해 교사들과 논의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규를 알면서도, 부모는 이미 마음을 먹고, 통보하는 식으로 했어요. 하는 집이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속상해 하고, 새로운 조합원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발레를 시키고 싶다.’ ‘임신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토요일 1시간이라도 떨어지는 시간을 갖고 싶다.’ 등 방모임 분위기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또 논란이 되어서 홈페이지에 말이 많이 오고 가고, 다시 각 방모임에서 이야기되고. 2주전쯤 두 방이 함께 통합모임을 하면서 격렬한 토론이 오갔어요.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잘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교육을 했어요. 이유는 저는 토요일 출근하고, 아이는 할머니랑 있으니까, 할머니랑 가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었지요. 보내면서 느낀 것은, 나는 그런 의도로 했지만, 아이가 터전에 가서 얘기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나도 가고 싶어. 저로 인해서 다른 부모들을 흔들리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빨리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병순 저희는 작년에 개똥이네 조합원들이 대폭 교체가 되었어요. 전업주부 위주였다가 일을 하는 엄마들이 들어오고, 기존 조합원들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엄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들어올 때는 신입조합원 교육에서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사교육 안하고, 생협을 가능한 이용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깊이 생각하고 생활하지는 않잖아요.

작년부터인가 한글 교육, 음악 교육에 대해 조심스레 의문을 갖는 조합원들이 생겼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방모임 등에서 아름아름 이야기 되었지요. 그러다가 올 4월 교육 간담회에서 사교육에 대한 교사회의 입장 정리가 간략하게 있었어요. 물론 이사회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교사회의 입장 정리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 전달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사교육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공식적으로 불쑥 내놓는 계기가 되었고 조합 전체가 한동안 술렁거렸어요. 시간은 짧고, 토론은 길고, 일방적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신입조합원과 구조합원 간에 의견 차이도 드러났고요.

졸업한 7세 중에서 한글 못 깨치고 학교 가니까, 남자애들의 경우 학교 가서 따라가기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나면, 고생 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요. 사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욕구를 느꼈을 때, 개똥이네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많은 고민이 되네요.

이현숙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 중에 한글 읽기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있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아이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터전에서는 부족하니 사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문자 교육은 남녀차이도 개별적인 차이도 있는 거고. 또 터전별로 7세 아이들에 대한 문자 교육, 또 초등입학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요.

오병순 교육의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7세방의 경우 직접적으로 한글을 접하도록, 깎두기공책을 만들어서 글자도 쓰고, 숫자도 쓰게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인위적인 한글, 숫자 교육 차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활동을 풀어내는 수단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들이 일기를 쓴다거나, 또 나들이 지도를 작성하는 등 아이들 터전 생활과 연관 있는 내용들을 문자를 통해 풀어내기도 하지요. 한 2년 전 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혀 한글이나 숫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민경진 참나무는 그런 것 전혀 안 해요. 교육소위가 없다가 올해 처음 만들어졌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상황이지요. 선배들이 다 졸업하고, 지금은 잘 모르니까 의견충돌도 시작되고요. 대표교사가 제안해서 사교육에 대한 조합원 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20여 가구 중에서 6~7집이 사교육을 하고 있어요. 의견도 다양해요. 조합원 중에는 ‘어린이집의 하루를 마치고 집에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실 하고 싶었지만 참아왔다.’는 분도 있어요. 참나무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을 어려울 것이라고 가정하고 현황분석이나 좀해보자고 판단했어요. 그동안 논의가 오픈되지 않았었고, 예상보다 사교육에 대한 의견이 많았지요. 참나무만의 기준은 만들지 못했지만,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도 있었어요. 교사들의 입장은 반대구요. 또 외부에서 가져와서 터전에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처음 교육을 받은 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도 있었어요. 어차피 졸업하고 나면,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중에서 어느 곳을 보낼 것인지에 따라 관점이 달랐어요. 앞으로 두 번째 교육은 일반학교에 아이를 보낸 선배조합원과 대안학교에 보낸 선배조합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에요.

공영아 산어린이집은 38가구이고요, 세 번째 세대교체를 하고 있어요. 10년째 산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작년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이가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아이를 위해서 토요일 발레를 시키는 집. 영어를 하는 집 외 몇 집, 가구에 비하면 적은비율이지만, 왜 그것을 하냐는 말은 없었어요. 누가 무엇을 한 대, 아이도 처음엔 나도 하고 싶다거나 흥미를 보이다가, 오래 지나면,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고 있어요. 사교육을 하고 있구나 정도이지요.

조합원 중 한사람이 산어린이집에서는 특기교육을 하지 않느냐. 축구나, 풍물(?) 등 그런 것처럼, 영어나 한글도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작년에 종종 나왔는데 풀지 못하고 가다가, 작년 말에 전체 조합원교육 하는 중에 교육내용과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사교육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그건 자유지.’ 등의 의견이 나왔는데, 수면위로 얘기가 뜨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는 조합원교육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두 명

산어린이집에 와서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하반기는 특기교육에 대해 할 예정이
예요. 두 가지 겹쳐요. 특기교육과 과외교육으로, 산어린이집 안에서 해야 하지 않나,
조기교육과 겹쳐서 올라오고 있어요.

사회자 수면에 떠오르고, 자유롭게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다보니까, 고민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터전마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새로운 세
대들은 욕구들이 더 있는지. 왜 강하게 느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현숙 지난해 공동육아 부모만족도조사를 했잖아요. 부모들 사이의 어려움을 물어봤는데, 교
육관의 차이가 가장 어렵다고 했고요. 다음으로는 많은 일, 시간적 어려움, 문화적인
차이가 힘들다고 답변했어요. 또 개별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받고 있
다가 16.2%가 2005년에는 12.8%로 나왔고요. 무엇을 하나보면 한글, 피아노, 은물,
오르다, 놀이교육, 영어학원, 학습지, 수영 외 스포츠 이런 순서예요.
올해 이명박 정부가 영어몰입교육, 초등1학년부터 영어교과를 시작한다는 등 막무가내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자, 부모들의 걱정, 불안, 압박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회자 그럼 확대해서 주변의 상황을 보지요. 외부 환경이 힘들고, 신세대들은 공동육아를 기
능적으로도 보는 측면이 있고, 그럼 정작 아이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수빈 제 주변에는 공동육아는 아니지만, 공동육아에서 하는 내용인 놀이위주, 생태, 자연친
화교육, 유기농 먹을거리 등을 하는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나 6세 정
도가 되면 학습위주로 가야하니까 영어유치원으로 빼야않지 않을까 고민들을 하더라고
요.

오병순 저도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글은 기본으로 4세 때 띠고, 영어유치원도 많이 보내
요. 140만원에서 300만원이 드는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
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싶지요.

앞으로도 아이가 성장하면서 영어는 계속 해야 하잖아요. 유아기는 내 주변을 알고, 신
체발달이 중요하고, 공동육아 기본철학을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기를 다지는 시
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시달릴 시기는 많고, 너무 일찍부터 시키려고 하니까 아이
들이 싫증을 많이 내잖아요. 친척 중에 자기아이를 명문학교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분
이 있어요. 그 분을 보면 엄마들과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과학고나 외국어고를 보내기
위한 정보를 쫓아다녀요. 아이보다 엄마가 완전히 전투 하는 것 같죠. 안 좋게 느껴지
고. 이 학원에다 이것 맡기고, 저 학원에다 저것 맡기고, 그렇게 시킨다고 학습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닐까하죠.

사회자 요즘 사교육은 앞서간다는 온갖 교육이론을 조합하기도하고, 원어민이 가르치는 태권
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 채워주는 것 같이 홍보하는 영어학원 등 두려
움을 자극하고 구미에 맞게 포장하고 있어요.

- 공영아 둘째아이가 산어린이집을 가기 전에 여기저기 다녔어요. 저는 주일에 한번이었지만, 다른 아이들을 보면 일주일 시간표가 있었어요. 엄마는 매니저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이에게 관계가 생기지 않아요. 가면 신기한 것 많고, 발달에 좋을 것 같지만,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생기지 않았어요. 정점은 입시에 가 있고, 대학입시가 유아기로 내려온 것 같았어요.
- 이현숙 얼마 전 신문에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넘어서고 있다는 기사가 났어요. 강남에서는 학원비가 140만원에서 300만원을 훌쩍 넘고 있고, 태권도를 원어린이 가르친다고 하고, 줄넘기도 학원에서 배우고, 이쯤 되면 강박증을 넘어 사교육 안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중독 증세가 아닐까요.
- 공영아 그게 실체잡아요. 사교육하지 않으면 자사고 못가요. 코스를 따라가며 받지 않으면 가지 못해요. 저학년 때 놀리다가 학원 보내려고 해도 수준이 안 되어서 못 가고, 하늘이 까매져요. 공교육이 무능하다고 느껴지고요. 사교육을 받아야만 갈 수 있다는 현실, 학교 영어교육을 믿을 수 없고, 이미 널리 존재하고 있는 불안감이에요.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 허위거나 가짜면 “그런 것은 필요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입시가 강화되고 실체하는 불안과, 영재가 아니면, 엄마 매니저가 같이 붙지 않으면 못 가는 현실,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 이현숙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아이를 공교육에 보낼 것이라고 유아기 때부터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 사회자 문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을 한다지만, 정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를 경쟁사회에서 뒤지지 않게 하고 싶다’는 부모들의 생각이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공동육아는 다른 교육을 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고, 철학과 지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공동육아로 성장해서 뒤진다는 것인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요.
- 오병순 교육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특목고, 외고, 등 외고를 졸업한 뒤에 아이비리그, 서울대를 가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원화된 사회에서 대학의 선발기준도 달라져야 해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점수만을 가지고 뽑지 않아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뽑는다고 해요. 우리도 바뀔 것이라고 봐요. 지금의 상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 까놓고 얘기하면 사교육 시장은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다. 상술, 마케팅에 좌우되고 있고,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킨더슐레 이런 간판이 있어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실제로 알아보면, 현지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우리식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상품화시켜요.
- 공동육아를 선택했지만, 한 사람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경진 저는 다원적이지 않는 직장에서 일해요.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경쟁하는 구조지요. 그 안에서는 소위 출세라는 것을 위해서는 조기교육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것이 이미 검증받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의 수준이나 다양성에서 보면 차이는 극과 극이에요. 골프·수영·달리기·줄넘기·축구·수영 등등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요. 또래집단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학원을 보내고, 가능한 빨리 시켜서 남들보다 경쟁하게 해요. 패턴이 죽 있으니 따라 가게 되고요. 유학 보내려면 영어하고, 외국인 학교 등등 로드맵 쪽 있어요. 외국물 안 먹으면 출세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현실을 보건데,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집단속에서 넉넉한 상황에서 준비시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공부는 강압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수빈 저에게는 공동육아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 생각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공동육아 아이들의 성장이 궁금하고요. 흑자는 우리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하지만, 대부분은 공립학교에 보내는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공립 초 등 가서 어떤 아이는 잘하고, 어떤 아이는 어렵고, 이런 것이 비교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 어린이집 출신 아이 중 하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3개월 됐어요. 받아쓰기 같은 공부는 잘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반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잘 지내는 아이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한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만 행복한 것인가. 지금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딴섬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사라도 가게 되면 외로워지고, 결국은 세태에 휩쓸려가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공동육아 동문들의 연대가 부족해요. 이런 연대의식을 지속시킬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신다면 어떤 측면이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측면인가요.

이수빈 저희는 깍두기 노트까지는 아니지만, 편지 쓰기 등을 활용하거나, 그림 그린 후에 글씨 쓰기, 행사를 위한 안내장을 만들기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한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한글에 관심을 가지길래 집에서 선생님, 아마의 별명을 가지고 카드를 만들었어요. 한글만 적힌 것. 사진만 있는 것. 사진과 한글이 같이 있는 것으로. 판 뒤집어 짝 찾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는 아이랑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런데 다른 부모들이 자기네들도 만들어 달라고들 난리였어요.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 여러 세트를 만들 수는 없고, 한 세트 만들어서 6,7세방 선생님에게 드릴 터이니, 어린이집에서 어쩌다 생각나면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로

로 했지요. 몇 개월 후 방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때문에 선생님들은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이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그 일을 예로 어느 선까지 부모가 얘기할 수 있고, 교사들은 어디까지 받아드릴 수 있는지 고민되었지요. 이런 지점은 선생님들도 갈등이 되시겠지요.

이현숙 말 잇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찌나 그렇게 잘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언어교육은 문화와 삶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맘껏 놀고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자신과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어른과 또래와 같이 생활하면서 채워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자라서 아이들은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지요.

한편에서는 많은 이들이 불안을 말하지요. 이렇게 놀기만 해도 되는지 불안하고, 불안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도 하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안한 것인지, 그 불안을 해소할 수는 있는지, 또 그렇게 하면 정말 불안이 해소되는 것인지, 한번쯤은 스스로에게 되물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며 오히려 아이들의 오늘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 공동육아 15여년의 역사 속에서 공동육아로 성장한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살고,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지금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단지 보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공영아 저는 아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불안인 것 같아요. 작년에 산어린이집 10주년기념행사 하면서 산집을 졸업하지 10년 된 아이들을 불러서 산어린이집에서 하루 잤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잘 컸고, 자기 심지를 가지고, 잘 크고 있다고 하셨지요. 때가 되면 공동육아도 아이들의 성장을 추적하여 연구하면 좋겠어요. 그것과는 별도로 부모들은 어떤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공동육아를 선택한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이었어요. 그러나 부모의 역할을 요구받으면서 살다 보니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되더군요.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르게 사는 길이 보이는 것이예요. 부모들은 자기 선택에 대해 스스로 불안하기도 하고, 공교육 보내서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하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공동육아를 오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래될수록 불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구조합원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아이가 가능한 글자를 오랜 뒤에 깨치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오래 읽어주고 싶어서’라고. 저는 아이를 얼른 떼어 내버리고 싶어서, 얼른 배우기를 바랐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불안이 가시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는 내성적이었어요. 자기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산어린이집 생활 3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주장이 확실해지고, 아이로서 스스로 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이한테 집중하면 불안을 떨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교육에 대해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은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이의 성장에 집중해서 보며, 나는 아이한테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보면 아이에게 부담이 가더군요. 나도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켜 보았는데,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와서 무엇을 또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아이가 부담스러워 해요.

오병순 불안의 이유는 하나는 시기를 놓칠까봐 불안한 것과 다른 하나는 대안학교도 보낼 수 있고, 공교육도 보낼 수 있지만,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에요.

이수빈 저도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요. 부모가 그렇게 키워서 왔는데, 다른 애들과 잘 어울리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지점이 불안해요.

오병순 제 주변의 한 아이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이미 영어를 어느 정도 다 하는데, 나름 공동육아로 아이를 키운 자긍심도 있고 해서, 영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초등학교 3학년 이 되어 시험을 보니 70점이 나왔다 해요. 상위 1, 2등을 할 정도로 학업 성적이 좋은 아이인데 그런 결과를 받고 무척 실망하고 당혹스러웠다고 해요. 언어 교육이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성적은 잘 오르지 않고 그래서 아이가 많이 속상해 하면서 ‘엄마, 나는 70점짜리인가 봐.’라고 했다는 군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런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수빈 애가 크고 나서, 나를 왜 이렇게 키웠냐고 말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해요.

사회자 공동육아 교육은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지요. 공동육아 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적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 교육이사를 맡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욕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오병순 저는 올해 교육이사가 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사교육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다시 한 번 공동육아에 대한 기본 철학을 되짚을 필요가 있다. 이사들과 논의하여 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해보자. 그리고 사교육을 시켰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과가 오는지. 사교육은 개별적인 욕구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또 하나는 내 아이에게 정말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 아이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아이들도 같이 보면서 얘기하자. 아이에게 좋은 것이라고 모두 다 합의가 된다면 교육 내용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을까.’ 등등. 5월 전체조합원교육에서 사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철국선생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사교육이란 양육강식이다. 교육이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논지로 이야기해주셨어요. 그러나, 아울러 말씀하신 것은 변화지요. 변하지 않으면 조직의 계속성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이들에게 욕구가 있다. 있으면 끌어오고 싶다. 시행착오를 겪어보자. 따로따로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소 거친 생각일 수 있지만, 야심차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사회자 적극적인 방법으로 풀어보고자 하신 것 같네요.

공영아 산방과후에서는 피아노를 해요. 교사와 부모가 합의를 해서, 초등과정과 유아는 다르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잘 해보세요.

민경진 저희는 선배조합원과의 대화를 통해 불안한 내용이나 걱정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아이들은 마을에서 하는 택견을 단체로 하고 있어요. 나들이겸 가지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즐거워해요. 일종의 사교육 시스템을 어린이집으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교사들도 있어요. 부모들은 ‘그 정도까지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터전의 입장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예전하고 다르게 변화했고, 공동육아도 변화해야 할 것 같아요. 성미산을 끼고도, 문제가 있어요. 파이는 정해져 있고, 파이를 늘려야 하는 때인 것 같아요. 부모들도 깨는 생각을 해야 하고요. 서서히 해주어야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다 죽는 것 아닌지. 고정된 사고방식 속에서, 일탈하면 큰일 나고, 철학에 위배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막 나갈 사람은 없다고 봐요. 상식적인 사람들이니까요. 뭘 한다손 치더라도, 벗어날 사람은 없다고 봐요.

사회자 부모들의 성숙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유를 갖고 지켜봐야하고요.

이수빈 벌써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하니 아쉽네요. 작년 조합원교육 때 강사가 강의하고 조합원은 듣고, 이렇게 진행하는 교육이 수동적으로 느껴졌어요. 강의만 하고 조합원들의 생각을 나눌 수가 없으니 답답했어요. 내년엔 신입조합원들이 들어오면서 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올해 조합원교육에서 서로의 생각을 푹 터놓고 세계 이야기하고 났더니, 사교육을 세계 하던 분이 ‘앞으로 끊겠습니다. 저 때문에 터전이 시끄러울 줄 몰랐다.’고 했어요.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조합원들끼리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사회자 아이들도 다 다르게 성장하지요. 어른들도 성장속도가 달라요.

민경진 어린이집의 역사가 오래되어 철학이 공고한 사람들이 있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이번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조합원을 섞어서 할 거예요. 분임토의나 무슨 방법을 통해서. 트다가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감내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세한 장치는 필요하겠지요. 방향을 잡으면서 가면 되고요. 깔고 얘기 하는 것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었어요. 초기엔 운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원칙이 있지만,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점검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뚫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동육아 전체차원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의 상황을 만드는 것 필요하고요. 더 많이 이야기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회자 안정적인 것이 때론 해가 되기도 한다는 말에 이해가 되기도 해요. 오늘은 우리가 결론을 돌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음 논의를 위해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끝으로 이 논의에 참석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쉽지만 마치도록 해요.

공동육아의 사교육 논의를 위하여

김경태(둘리엄마) | 강서 공동육아협동조합 개구리어린이집 원장

우려와 걱정 사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로 사교육 또는 특기교육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어린이집 일과 중에 사교육을 위하여 조퇴를 한다거나, 사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사이에 갈등이 있다거나, 어린이집에 특기교육을 도입하자 등등.

공동육아라는 한 지붕 밑에서 공동으로 아이를 잘 키우며 잘 교육시키고자 모인 집단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상당수의 교사들이 이 같은 사교육이나 특기교육의 현상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곤란해 하거나 의구심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사교육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내면에는 공동육아 교육이 기존의 유아교육과는 다른 이른바 대안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한 전제의 하나는 공동육아 교육이 그저 아이들 개개인을 잘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경쟁지향적인 우리 사회의 그릇된 교육풍토를 바로 잡고 나의 아이가 아닌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 공동체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저 어른들이 추정하는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들 역시 사회적 구성원의 하나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을 선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열려진 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시해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교육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 속에는 이같이 공동체 지향적인 공동육아의 목표라든가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지 의문스럽다.

세대와 시대가 변했다고

사교육 논란의 배경에는 이 땅에 공동육아가 출발한지 만 14년이 되어가면서 공동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겠다. 공동육아운동을 통한 사회 변혁에도 관심이 많았던 초창기 부모 교사들에 비해 그저 좋은 어린이집, 안정된 직장을 바라는 부모와 교사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했던 초기에 비해 이제는 유아교육과 관련된 사교육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다양해졌다. 상술도 점차 세련되어진다. 부모의 선택폭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 주5일제가 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부모들은 바쁘고, 골목문화라든가 아이들의 놀이문화는 사라진지 오래다. 가족 간의 놀이 문화도 마찬가지다. 돈을 쓰지 않고는 뭘 하고 노나. 그런데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져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학교 가서 힘들다고 하니 놀면서 배운다는 사교육시장이 매력 있을 수도 있겠다. 그에 더하여 조기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을 일찍 키워주지 못하면 꽃을 피울 수 없다고도 하니 요즘 세상에 무엇보다 어렵고 필요한 일중에 하나가 교육에 소신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소신 있는 부모 되기

소신을 가진 부모가 되려면 사교육을 뭘 시킬 것인가에 앞서서 지금 여기 사는 내 아이가 어

편 아이인가, 내 아이의 관심사와 의견, 적성, 흥미, 신체 상황 등 내 아이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부모가 좋은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본다. 좋은 교육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는 것은 많지만 자기 생각은 없는 아이로 키워낼 것인지, 체격은 좋지만 체력은 없는 아이로 키워낼 것인지.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많은 교육이 아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대목이다. 그저 아이들을 입시경쟁에서 이기는 입시기계로 생각하는지, 아이를 한사람의 주체적 인간으로 생각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과열된 사교육 시장을 보며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고,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한탄하지만 정작 내 아이는 경쟁구도 속으로 밀어 넣고 속수무책 한숨 쉬는 것이 전부인지, 그리고 그나마도 좀 더 시기를 앞당겨서 내 아이를 경쟁구도 속에 밀어 넣는 것이 경쟁을 덜 힘들게 한다고 오히려 위안을 삼는 것은 아닌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을 것인가?

공동육아와 사교육

사교육이 공동육아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교육은 공동체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이 앞서게 되며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와(가족을 포함하여) 참여하고 있지 않은 아이 사이에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교육으로 인한 소외는 아이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육아의 부모와 교사사이에도 일어난다. 사교육을 선택하는 부모의 입장은 자녀에게 보다 다양한 재능과 적성을 살려주는 교육을 원해서라던가, 자녀의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는 교육을 원해서, 경쟁지향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등등 이유가 많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무엇이 부족한지, 어린이집 교육내용을 제대로 이해받고 있는 건지,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이 왜 개별적으로 흘러가는지 등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 있다.

내 아이와 함께 우리의 아이들 잘 키우고 공동체를 지향하려면 각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을 부모, 교사, 아이들 모두 함께 충분히 공유하고 의논하며 서로의 불안과 염려, 기대등도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육아 현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요구와, 고민, 목적 등은 다르더라도 교육의 문제를 함께 풀고 함께 나눈다는 입장에서 사교육의 문제 역시 함께 풀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나 주의 할 점은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배척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무조건 의견을 관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교육의 문제를 풀 때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는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교사회가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해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을 선택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부모의 몫이자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어린이는 터전 밖의 적절한 도움과 지원도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교육이 필요한 경우라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실천하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을 시행하기에 앞서 최소한 담당교사내지 교사회와 어린이의 발달상황이나 요구, 정서, 적성, 신체리듬 등에 대해 의논하도록 하며, 가급적 어린이집 일과 중에 하는 사교육은 피해서 일과 후나 주말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어린이들에게 소외감이나 열등감 등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며 사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교사회와 사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서 어린이의 변화과정을 같이 공유하고 이해함은 물론 사교육 시행과정에서 오는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솔직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사교육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원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공동육아 교육에 대한 부모교사간의 합의와 공유,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불만을 서로 감추거나 무시할 경우 진정한 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동육아 교육내용과 환경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해가 다른 지점이 무엇인지, 부모와 교사가 함께 교육내용을 만들어가는 자세로 진지한 논의와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동육아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좋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경쟁지향적인 우리사회의 그릇된 교육 풍토를 바로 잡으려는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출처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8년 여름호